

지혜 IX

단점의 개선을 넘어 장점을 극대화 하신 예수님의 사역

1. 존재적인 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며 존재적인 눈이다. 존재적인 눈의 핵심은 '토브'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히 기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에 대한 핵심적 구절이 요한복음 3: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상황과, 환경과, 상태를 넘어선 존재적인 눈, 바로 사랑의 눈이다.

존재적인 신앙은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넘어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머무는 영원에 초점을 둔다. 그 마음이 아가서 '검으나 아름답다'의 고백이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눈이다. 세상의 눈은 보여지는 것을 본다. 분석하고 판단한다. 판단의 근거 위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고 분석된 자료가 중요하다. 점검해야 하고 검증해야 한다.

2.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 하신 예수님의 사역

(1) 예수님의 제자 양육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를 주목하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에 의해서 확장된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단점과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뽑혀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약점, 단점, 허점이 가득하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양육하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단점과 약점을 개선하고 고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신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들안에 있는 믿음을 극대화 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신다.

[마태복음 9: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믿음의 사고는 바로 이와같다. 단점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고는 단점을 개선하는 일 보다 그 사람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2) 다른 성향의 제자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같지 않다. 환경, 교육수준, 사고방식이 다르다. 왜 이런 제자들을 뽑으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은 '개인'이 아닌 '몸'이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기능과 특성이 다른 '지체'들을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다.

각 지체의 장점들을 극대화 시켜서 하나님의 '몸'을 만드셨다. 손이 발을 보고,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발의 기능을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손은 자신에게 없는 발의 장점을 보고, 그에 대한 도움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몸'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사고의 변환이 일어난다. 넓어지고 깊어진다.

모든 것이 다른 열 두 제자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사역은 놀랍다. 각자 다른 지체가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비밀이다.

(3) 믿음의 사고 그리고 '미래'

다가올 미래의 리더십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고가 아니다. 물론 정보와 자료는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분석은 언제나 '한계'를 지닌다.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단계를 넘어, 그 사람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장점을 주셨다. 정보와 자료는 각 개인에게 있는 '개성'을 묶어 버린다. 분석이 요구하는 인간을 만든다. 그래서 미래는 무익한 인간, 무의미한 인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계가 다 하기 때문이다.)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는 이상의 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고'이다. 믿음은 자료와 정보, 그 이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4) 장점을 극대화 하는 일은 내 안에 '열리지 않았던 영역'이 열리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 등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의 장점을 보라. 예수님은 그들안에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하셨다.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베드로를 사용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영역의 문들을 열게 하셨다. 바울의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질을 사용해서 이방선교의 기초와 뼈대를 만드셨다. 복음서에 나타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그들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사와 잠재력이 믿음 안에서 증폭되었다.

(5) 열린사고, 열린마음, 은총의 사고가 필요하다.

'은총적 사고'를 기억하라. 모든 것을 분석하기 전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은총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은총적 사고는 사탄이 선악과의 죄악을 통해 만든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친다. 긍정적이다. 어떤 상황속에서도 축복과 희망의 워딩을 잃지 않는다.

* '공기를 전환 시키는 자' - 은총적 사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이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현실적 분석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공기를 위축시켰다. 두렵게 했다. 너무나 맞는 분석이고 정확한 분석이다. 이 분석을 통해 자기를 보았다. 형편없이 연약한 자기를 보았다.

[민수기 13:31-33]

31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라. 이들 또한 가나안의 현실을 보았다. 그런데 이들은 은총의 사고와 믿음의 사고를 했다. 분석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결국 두 사람이 공기를 바꾼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다.

3. 존중과 기대감**(1) 기대감**

[요한복음 14:12]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희망이었다. 기대감이 있으셨다. 언제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 격려하셨고 용기를 주셨다. 언제나 큰 기대감으로 우리를 대하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도 풀려야 한다.

(2) 존중

[빌립보서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중해주셨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 작은 자도 큰 자가 되었다. 용기없는 자도 용기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섬김의 마음이다.

격려자가 되라. 누구든지 내 앞에 설 때 작아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라. 나보다 큰 자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세우라. 그 앞에만 서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를 장착하라. 기대감과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자. 혼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지자. 할렐루야